

■ 그림 여행



흰 독말풀

(Jimson Weed c. 1932)

조지아 오키프 (Georgia O'Keeffe 1887 -1986)

린넨에 유채 121.9 cm x 101.6 cm

사진: 조지아 오키프 뮤지엄

흰 독말풀은 뉴 멕시코의 자연에서 자라는 꽃이다. 무리 지어 줄기에서 자라나고 꽃은 나팔모양으로 피어나는데 독성이 강한 꽃이라고 한다. 1930년대에 뉴 멕시코에 살고 있던 조지아 오키프는 이 꽃에 대해서 '한낮의 더위 속에서는 시들어 버리지만, 저녁 무렵의 서늘한 바람 속에 피어난 한 무리의 꽃들은 더할 수 없이 아름답다' 고 기록했다.

그 꽃 한 송이를 화면의 전면에 배치하여 거대하게 그려 놓았다. 꽃을 확대해 캔버스가 가득차도록 그리려는 것은 조지아 오키프의 독특한 스타일이다. 꽃 속에 얼굴을 묻고 들여다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디테일과, 정제되고 선별된 깨끗한 색채, 단순하지만 역동적이며 리드미컬한 구도로 인해 화면 전체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시각의 세계를 창조해 낸다.

꽃은 부드럽게 구비치는 곡선과 함께 화면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유연하게 흐르는 것 같이 느껴진다. 꽃의 중심은 녹색이고 그 속으로부터 암술과 수술이 솟아오르고 있다. 꽃잎은 흰색이지만 다양한 채도로 그려져 있다. 꽃을 둘러싼 잎새도 마찬가지이다. 언뜻 단순하게 보였던 그림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오랜 시간과 고도의 테크닉이 들어갔지만 공들인 흔적이 보이지 않는 오키프 특유의 화법이다.

선명한 색채와 함께 과감하면서도 정밀한 디테일로 그려진 한 송이 꽃은 관객을 압도하며 다가온다. 이 정도로 꽃을 커다랗게 그려서 보여주는 데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을 도리가 없다. 배경의 청아한 푸른 하늘은 아마도 꽃이 활짝 피어난 어느 저녁 무렵일 것이다. 마치 하늘을 보고 누워 꽃을 올려다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꽃을 들여다 보다가 갑자기 자신이 작아져 버린 것 같기도 하다. 꽃이 있는 화면은 명상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이 미시적인 세계는 '들여다보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실제로 오키프는 '아무리 바쁜 뉴욕 사람들이라도 일단 멈춰서 보지 않을 수 없는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 고 말했다. 꽃 한 송이 자세히 들여다볼 여유없이 바쁘게 사는 현대인의 삶 속에는 이런 '멈춤'과 '들여다봄'의 시간이 정말 필요하다.

김 동백

따뜻한 마음과 손으로 모시는
**남가주 한인
장의사 이호섭**

LA/OC/San Bernardino/Riverside
지역에 관계없이 상담, 장례 인도해드립니다.



이호섭 장의사
FDR 4701
시신 방부사
EMB 9702
장례보험
4287740

장례는 신속히 경비는 저렴하게
예식은 아름답게 최고급 식당에서
책임지고 모십니다.
비교 확인 하십시오.

매장, 화장, 장례보험
풀러턴 소재 스킷 맥콜리 패밀리
장의사(FD 1593)와 함께 일합니다.

개인 상담, 단체모임(교회)에서
무료 세미나 해드립니다.

경력: 10년 이상의 장의사,
시신방부사, 로즈힐 묘지 근무.

C.714.951.2520
O.714.870.6303

501 W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2



조리시간 40분 소요 미리 예약 주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PRO 닭 한 마리

GRAND OPENING



**닭요리
전문점**

* 한방 생약제와 신선한 재료로 정성껏 우려낸 깊은 육수의 깊은 맛을 전합니다.*

- | | | | | | |
|---|---|--|---|--|--|
| 
닭곰탕 | 
닭게장 | 
초계국수 | 
황기새싹인삼백숙 | 
안동찜닭 | 닭칼국수
영양전복담죽
전복백숙
닭도리탕 |
| 
일본식 카라이아게 | 
치킨 카레 커트렛 | 
녹두전 | 
육회 | 
로스펜체 | |

PRO 닭 한 마리 | 7850 Commonwealth Ave Buena Park CA 90621 | **714.735.9283** | 월요일 Closed